

조선대 이사회 파행 거듭...비난 자초

새 이사진 구성 또다시 무산...학내외 반발 확산 이사 늘려 연임 시도...‘꼼수 부리고 있다’ 지적

6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조선대 ‘차기 정이사’ 선임이 또다시 무산되면서 학내외에서 법인 이사진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9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을 11명으로 늘리는 안이 제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를 모두 연임을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8일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 선임’과 ‘제2기 이사진 구성’ 안을 논의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2차레나 부결된 개방이사 선임 뒤로 미루고 있던 이사 6명을 선임하기 위해 네거티브 표결 방식을

안건에 부처지만, 8명의 이사 중 4명만 찬성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이사회는 다음달 15일에 이사회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대확정관 변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임기가 만료한 이사들이 이번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인이사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사를 모두 임기가 지난 2월로 이미 끝났는데도 “후임 이사 선임 때까지는 현 이사에 권한이 있다”며 긴급사무처리권을 내세워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개방이사는 물론 후임 이사 선임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후보로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들의 자질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부에 개방이사 추천을 의뢰했지만 이 안건 또한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기존 이사 누구도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은 채 새로운 인물만 4명을 추가해 이사회를 꾸리겠다는 새로운 꼼수라는 게 대학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대학 A이사는 “정말 부끄럽고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이사회가 전원 사퇴할 경우 구재단에서 추천된 후보들만 남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단을 하

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사 종족수 변경안 또한 현 이사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하기 때문에 통과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천된 개방이사 후보들의 자질이 못 미친다는 점도 차기 이사회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윤창록 교수평의회 의장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대학 이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학 구성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으며 현 이사의 권한을 정지시키기 위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날씨

▶별도 지역 날씨 정보(단위:도)

☀ 해돋이 05:18/해질 19:49
🌙 달돋이 15:08/달짐 01:31

나들이	30
가급적 외출을 삼가세요	
빨래	20
세탁기 쉬는 날	
세차	10
다음으로 미루세요	
운동	30
실내운동으로 만족하세요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80-20	목포	09:37	02:58
목포	80-20	목포	22:36	15:27
순천	90-20	여수	04:46	10:58
여수	90-20	여수	17:52	23:56

시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도)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6월 20일/목	(21/30)	(19/30)	(19/27)	(20/30)	(23/30)	(22/25)
21일/금	(20/30)	(20/30)	(19/24)	(20/30)	(22/31)	(20/25)
22일/토	(21/29)	(20/30)	(18/24)	(20/29)	(22/28)	(21/26)

▶날씨안내 : 국민날씨131

80억 공금 횡령 공무원 감형 호소

항소심서 피해금 반환의사·반성문 제출

80억원대 공금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피해금 반환 계획을 제시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의 기소된 범죄(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무원 연금과 여수시가 가압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등 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다 손해배상 소송에



북적이는 나눔 장터 광주 북구청 산하 공무원과 자생단체, 주민들이 한달간 무료로 기증한 생활용품 7천여점을 깨끗히 손질해 싼가격에 판매하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가 18일 오전 아름다운 가게 광주점에서 열려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김애리기자 kji@kjdaily.com

옛 남구청사 주차장 부지 도서관 건립

48억 투입...내년 2월 착공 12월 개관 예정

남구 구(舊)청사 공영주차장 부지에 구민 도서관이 들어선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봉선동 구 남구청사 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48억원을 투입, 연면적 2천30㎡ 규모의 구민도서관을 건립한다.

남구 구민도서관은 당초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구 청사부지 매각시 보건의료 부지도 포함돼 공영주차장 자리에 신축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남구는 올해 하반기까지 주

민설명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설계 공모, 용역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내년 2월 구민도서관 신축공사를 착공해 내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구민도서관에는 열람실, 종합자료실, 프로그램실, 영아자료실, 문화교육특구센터가 들어선다. 또 옥상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복합문화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현재 남구는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 월산동 금호평생교육관, 양립동 광주시립사적지도서관 등 3개의 대형 거점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주월동 푸른길도서관이 건립공사 중으로 7월 완공,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남구 구민도서관이 개관되는 2014년에는 총 5개의 공공 거점도서관이 완비된다”며 “이 거점도서관들과 관내 작은도서관들을 네트워크화 해 주민들이 다양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역서 기차 탑승하면 선물 ‘와르르’

광주철도 개통 100주년 기념...8월까지 이벤트

광주 송정역이 철도 이용객을 위해 선물이 푸짐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철도 개통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광주 송정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역사에서 ‘내일로’ 열차 티켓을 구매한 이용객들에게 무료숙박권, 부채 등을 주는 ‘내일로 100 이벤트’를 열고 있다.

‘내일로’ 티켓은 만 25세 미만인 이용할 수 있는 열차여행 탑승권이다. 광주송정역의 이번 이벤트는 오는 10월1일로 다가온 광주철도 개통 100주년을 기념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열차여행을 권

장하기 위한 것.

먼저 매일 5명의 티켓 발권 손님에게는 광주 송정역에서 5분 거리의 숙박업소 무료숙박권을 준다. 여행 중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매일 101, 201, 301번 등의 손님에게는 전통부채가 증정된다. 이 부채에는 한국 미술대전에 입선 경력이 있는 김병기 광주송정역장의 한국화가 그려져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102번부터 매 100단위 2번 손님에게는 보온병을, 3번 손님에게는 스포츠타월을 지급한다. /광산=주형탁기자

“생명 위협 ‘벌 쏘임’ 주의하세요”

광주소방본부, 벌집제거 119생활안전대 가동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벌 쏘임이 집중되는 이달부터 8월까지 ‘벌집제거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여름 무더위 시작과 함께 학교, 주택가, 등산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벌들이 출현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11개대를 확대해 27개대로 운영한다.

시 소방안전본부의 지난해 벌집제거 생활안전 출동건수는 총 2천555건이며, 6월부터 8월까지 1천953건으로 76.4%를 차지해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말벌의 경우 한 번에 쏘는 독의 양이 일반 벌의 15배에 달하고, 계속해서 침을 쏠 수 있어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 /정문기기자 moon@kjdaily.com

환경운동연합 ‘4대강’ 전면조사 촉구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비리와 부실공사에 대해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1년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연합이 4대강 사업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사가 1조8천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을 폭로하고 국토부에 추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공사단위 당 자원 투입량을 뜻하는 ‘폼셈’을 조작해 사용료를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금액의 39%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먹다남은 음식물을 미생물이 싹~ 먹어치운다! 사실인가요?

친환경 미생물 음식처리기 **미랜**

milen 미랜의 특징

세계 최초 3無 시스템 실현
無약취 · 無침출수 · 無배기호스

발효·소멸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완벽제거 어떠한 환경오염 물질도 배출하지 않음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미생물 사용
발효 소멸된 부산물은 친환경 퇴비로 활용 가능
설치 필요 없이 전원코드만 꽂아 사용

※선착순 20명에게 7일간의 무료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총판 및 대리점 모집

- 상식을 뛰어넘는 신개념의 총판자격조건(각종 리스크 부담 조건 없음)
- 대리점 개설 및 렌탈 영업지원 모집 지원
- 렌탈 영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너무나 쉬운영업
- 창업 경험자 또는 무 경험자도 가능한 영업 지원
- 지속적 광고 지원(신문등 매체 및 sns를 기초로 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milen (주)미랜바이오
www.milen.co.kr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307-6(1층)
062)515-1249, 010-5663-7987

마음까지 통하는 사람들 - 통인 Moving Living Caring

포장이사 || 일반이사 || 보관이사 || 사무실 이전

통인이사 고객님의 드리는 통인의 특별한 혜택!

입계 최초 에이프런 서비스 제공
이사 후 한 번 더 방문하여 만족할 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알리지 클리닝(침대 및 침구류 2개) 서비스
- 침대 밑 바닥 먼지제거 및 살균/소독
- 오존 살균(방 2개) 서비스(새집 증후군)
- 장롱 안 커튼 오존 살균/탈취(안방, 자녀방)

수백파 건강인테리어 (유해파 검사 후 중화)
수백파 및 건강유해파 검사, 중화후 리모델링
합리적인 가격으로 완벽한 마무리까지 이사하는 날 행복한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카드로 결제시 50만원까지 현금 대신 선포인트로 결제 가능

대표 전화 **1577-6614** ☎. 062)962-0014
H. 010-3936-2424